10/09/17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옴 샨티 1983/01/03

2 중의 외국인 자녀들과 진심을 나눈 밥다다의 대화 .

오늘 밥다다는 특별히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을 만나려고 왔다. 먼 데서 온 너희 자녀들 모두 너희의 스위트홈에 도착했고 자동적으로 모든 성취를 다 경험하는 축복을 여기서 받는다. 너희들은 이 축복의 땅에서 축복의 공여자 아버지를 만나려고 왔다. 밥다다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매 사이클마다의 자녀들을 보니 기쁘다. 밥다다는 지금도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바라트의 영혼들 중 많은 수가 목마른 영혼들이며 여전히 찾고 있음을 본다. 하지만 육신의 형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은 먼 데서도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권리를 차지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자들은 가까워진 반면, 가까이 있는 자들은 멀어졌다. 밥다다는 그런 자녀들의 놀라운 행운을 보는 것이 기쁘다. 오늘 서틀 리전에서 밥과 다다는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의 특질에 관해 진심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바라트의 자녀들과 외국에서 온 자녀들, 양쪽 모두 각기 나름의 특질을 갖고 있다. 오늘 그들은 자녀들의 놀라움에 대해서 칭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너희는 무엇을 버렸고 어떤 행운을 성취했느냐? 바바는 너희가 복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방식의 영리함을 보고 있었다. 너희는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영리한 사업가들이다. 너희는 먼저 성취를 경험한다. 너희는 훌륭한 성취를 보았고 그 다음에 낭비적인 것들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내려놓았고 뭘 성취했느냐? 만일 너희가 그것들을 목록으로 만든다면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하나를 버렸고 몇 백만을 성취했다. 그러니 이것이 버리는 것이냐, 성취하는 것이냐? 너희가 세계에서 그렇게 특별하고 고귀한 영혼들이 되리라는 것,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너희 영혼들이 생각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크리스천이던 너희가 크리슈나의 나라로 가리라는 것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종교 창시자의 추종자였다. 밑동에 남아있지 않고 너희는 가지에 붙들렸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생의 다양성의 밑동의 일부, 즉 원래의 영원한 브라민에 속하며 따라서 신인종교에 속하는 자들이 되었다. 너희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한 성취를 보면서 너희는 뭘 버렸느냐? 너희는 단기간 동안 단지 잠을 정복했을 뿐이다. 너희는 잠 (소나)을 버렸고 금(소나)이 되었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는 너희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을 보며 밥다다는 미소 짓는다. 너희는 각자 편한 시간에 일어나곤 하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희들은 잠을 이미 버렸다. 뭔가를 버리기 전에 너희는 행운을 보았다. 암릿 벨라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잠이 너희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를 버렸느냐, 아니면 질병을 버렸느냐? 음식과 음료를 버린다는 것은 갖가지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너희들이 자유로워지지 않았느냐? 그 대신 너희는 건강과 부, 양쪽을 다 받았다. 너희가 아주 영리한 사업가라는 말을 한 이유가 이것이다. 바바가 2중의 외국인 자녀들에게서 본 또 하나의 특질은 어떤 일에 착수하든 너희는 대단히 열중해서 그것을 한다는 점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도 역시 원한다. 너희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나아가므로 만일 너희가 움직이는 동안에 마야가 사소한 방해라도 한다면 너희는 아주 빨리 두려워한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도 역시 일어나고 있느냐? 너희들은 경탄한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에는 더 강해진다. 너희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용감한 군인들이다. 너희들은 까다롭지 않을 테지? 너희는 겁을 먹는 자들이 아니겠지?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연극을 공연한다. 너희들은 마야를 쫓기 위한 좋은 시설물들도 역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무한한 드라마에서도 배우인 너희들은 참으로 용감한 군인들이 아니냐? 사랑과 애씀 사이에서 너희는 줄곧 사랑하며 지내느냐, 아니면 애를 쓰느냐?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억 속에 잠겨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느냐? 혹은 너희가 기억의 화신이냐? 너희는 한결같이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느냐? 또는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느냐? 아버지와 대등해지고 있는 자들은 한결같은 화신들이다, 즉 기억의 화신, 미덕들과 모든 힘의 화신들이다. 화신이 된다 함은 그것이 곧 너희의 모습이 된다는 뜻이다. 미덕과 힘이 별개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모습 속에 그것들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약한 산스카르나 결함이 오랜 세월 동안 너희의 모습이 되어온 것과도 같다. 너희는 그 약점을 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자연스러운 성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취소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런데도 그 성질 또는 자연스러워진 산스카르는 이미 너희의 모습이 된 탓에 심지어 너희의 의식적인 바람에 맞서기까지 하면서 이따금씩 효력을 발휘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미덕과 모든 힘이 너희들 본연의 모습이 되게 해라. 내 성질과 내 본래의 미덕들은 아버지의 성질, 아버지의 미덕들과 같아져야 한다. 그렇게 미덕들의 화신, 힘의 화신, 기억의 화신이 되는 자들은 아버지와 대등하다고 불린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 스스로를 이런 것들의 화신으로 경험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목적 아니냐? 성취라는 면에서 너희는 최대로 성취하겠느냐, 그저 조금만으로 행복하냐? 너희는 달 왕조의 일부가 되려느냐? (아닙니다.) 달 왕조의 왕국도 덜하지 않다! 몇 명이나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겠느냐? 여기 앉아 있는 너희들 모두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겠느냐? 라마에 대한 칭송도 못지 않다! 너희가 항상 높은 열성과 열의를 가지는 것은 좋다.

세상의 영혼들이 너희들 모두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느냐? 지금 모든 영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너희를 경험하려고,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들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만 소리쳐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들도 역시 소리쳐 부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신저, 예언자, 신인 영혼이 와서 자기들을 집에 데리고 돌아가 줘야 마땅하다고 느낀다. 세상의 이러한 부름에 응하여 충족시켜줄 자가 누구냐?
그들은 숭배받을 가치 있는 너희 신인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기들의 신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일깨워 데리고 돌아가기를 그들은 바란다. 그것을 위해 너희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컨퍼런스 후에 신인들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제는 컨퍼런스 전에 너희들 스스로를 고결한 영혼들로 드러낼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도 세워라. 이 컨퍼런스를 통해 절망한 그들이 희망을 경험하게 해줘라. 너희는 개관식 때 그 등잔들에 불을 붙일 것이고 또 코코넛도 깨뜨릴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순수한 희망의 등잔에도 불을 붙일 것이다. 너희가 코코넛을 깨뜨리듯이, 목적지를 이미 보았으니 그것들에 스탬프를 찍게 해라. 그러므로 외국에서 온 자들과 바라트 출신들도 역시 이런 준비를 미리 함께 해야 한다. 그제야 비로소 위대한 순례가 드러날 것이다. 계시의 광선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온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너희는 아부가 세상의 등대라고 얘기한다, 이 빛은 암흑 한가운데서 새로 깨어나는 경험을 줄 것이다. 너희들 모두 이런 이유로 오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저 너희들 자신만 충전한 다음에 가버리겠느냐?
과제가 성공하는 토대는 모든 브라민이 통일된 하나의 생각을 가지는 데 있다. 모든 이가 협조를 필요로 한다. 요새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약하면 요새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너희는 젊든 늙었든 모두 다 브라민 가족의 이 요새를 이루는 벽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 하나의 생각으로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 모든 이의 마음에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 앗챠.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만큼 바바는 그에 따라 사랑과 기억을 보내준다. 앗챠.
변함없이 그러한 결의를 지닌 자들에게, 타고난 성공할 권리를 실행에 옮기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높은 행운을 끊임없이 의식함으로써 늘 강력한 상태에 머무는 자들에게, 자기의 특기를 끊임없이 과제에 쓰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과업을 한결같이 자기들의 과제로 경험하는 자들에게, 모든 과제에서 무한한 단계에 안정해 머무는 자들에게, 넓고 무한한 지각을 가진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
브라질 그룹 : 너희들의 나라는 거리로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가슴에서 제일 가까이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아니냐? 멀리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 영혼인 너희들은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 1초에 아버지의 세계, 마두반에 도달하지 않느냐? 너희는 한 바퀴씩 돌며 끊임없이 여행하느냐?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의 사랑을 보고 너희가 육신의 형태로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마두반에 오려고 어떻게 진심으로 노력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도착한 것을 본다. 바바는 이것에 대해 너희를 축하한다. 밥다다는 미래를 위해 너희에게 “한결같이 승리하고 다른 모든 이들도 끊임없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줘라!” 라는 축복을 주고 있다. 앗챠.
***** 옴 샨티 O M S H A N T I *****
한결같으며 쉬운 요기가 되는 쉬운 방법 .
오늘, 정원의 주인은 그의 정원에 있는 향기로운 다양한 꽃들을 보며 기쁘다. 밥다다는 갖가지 영적인 꽃들의 향기를 맡고 그들의 아름다운 형태를 보면서 각자의 특별함에 대해 노래 부르고 있었다. 그가 너희들 중 누구를 보든 너희는 각자 옆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 받으며 더 고귀하다. 비록 너희에게도 등수가 있지만 맨 꼴찌마저도 밥다다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각자 능력에 따라 마야의 정복자가 되는 데서는 약할지 몰라도 너희는 아버지를 이미 알아봤고 한 번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나 “나의 바바”라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비심의 대양 밥다다도 역시 수백만 배의 영적인 사랑으로, 너희가 그의 자녀들이며 특별한 영혼이라는 시선으로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본다. 그는 그런 눈길로 너희를 보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최소한 아버지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한즉 너희가 밥다다에게 속하므로 그는 사랑과 자비의 눈길로 계속해서 그런 자녀들이 전진하게끔 만든다. “나의 것”이라는 이 영적인 인식은 그런 자녀들이 힘으로 가득해지는 축복이 된다. 입으로 하는 말은 부차적인 반면 사랑의 생각은 강력하고 또 너희가 최고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밥다다는 입을 통해서 축복해줄 필요가 없다. 사랑의 이 미묘한 생각으로 밥다다는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모두의 형태로 자녀들 모두를 부양하고 있다. 세상의 삶에서도 역시 부모는 애지중지하는 자기 아이들을 여러 가지 강력한 것들로 남들 모르게 계속 부양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특별한 환대라 한다. 그러므로 서틀 리전에 앉아있으면서 밥다다도 역시 자녀들을 특별히 환대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마두반에 오면 특별한 환대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를 각자의 미묘한 천사 형태로 불러내서 그의 앞으로 부른다. 너희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녀들이므로 그는 생각을 통해 너희 자녀들을 특별한 모든 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미묘한 환대를 베푼다.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한 가지다. 이것은 일부 자녀들이 특별한 환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서 사랑의 부양의 형태로 특별한 환대를 받는 것이다.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각별한 환대로 너희에게 제공되어서 너희는 가외의 것들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브라마도 역시 특별한 사랑을 가진다. 어머니 브라마는 자녀들의 찬란함과 광채 없이 서틀 리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에게는 영적이며 어머니다운 애착이 있다. 미묘한 사랑을 불러내며 바바는 특별한 자녀들의 그룹을

드러낸다. 너희는 아마 바바가 사카르 시절에 특별한 사랑의 화신으로서 모든 그룹을 초대해서 친히 손수 어떻게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었고 또 즐겁게 해주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사랑의 그 산스카르는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 자녀인 너희가 이 경험을 가지려면 단지 천사의 형태로 아버지와 대등해지기만 하면 된다. 암릿벨라에 어머니 브라마는 "오너라, 자녀들아, 와라 자녀들아"라며 너희 자녀들을 소리쳐 부르고 특별한 여러 가지 힘을 자양분으로 너희에게 먹여준다. 바바가 육신의 형태로 여기 있던 때 너희에게 기이를 먹여주고 또 너희를 운동시켜 주곤 했듯이 바바는 서틀 리전에서도 미묘한 힘의 기이를 주고 또 너희가 이 훈련을 연습하도록 돕는다. 그는 너희가 지각으로 여행해서 한 순간 지고의 지역에 가고, 바로 다음 순간 서틀 리전에 가고, 그 다음 순간에는 물질세계에서 브라민 생활을 영위하도록 고취한다. 그는 너희가 세 지역 모두를 가로질러 경주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너희의 삶에는 특별한 환대가 합쳐져 있다. 이처럼 너희는 어머니 브라마가 뭘 하는지 들었느냐?

이중의 외국인 자녀들은 휴가 때 어딘가 먼 곳으로 놀러 가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밥다다도 역시 너희 이중의 외국인 자녀들을 특별히 초청한다. 짬이 날 때면 언제든 서틀 리전으로 오너라! 바닷가 더러운 모래밭에는 가지 마라. 지식의 대양의 해변으로 와라. 너희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성취를 경험할 것이다. 태양 광선, 달의 빛을 경험하고 소풍도 가고 또 놀이도 해라. 그렇지만 너희는 각자의 지각을 비행기처럼 타고 가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의 지각의 비행기는 항시 준비되어 있겠지? 그저 생각의 스위치만 올려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너희들 모두를 위해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을 테지? 아니면 때로는 비행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또는 연료가 바닥나서 너희가 중간에 회항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단 1초면 거기에 도달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2중으로 정제된 연료뿐이다. 2중으로 정제된 연료가 무엇이냐? 하나는 "나는 아버지의 자녀인 영혼이다"라 하는 무체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도취감이다. 두 번째는 육신의 형태로 아버지와 가지는 온갖 관계의 도취감이다. 이것이 순수한 가정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의 도취감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걷거나 돌아다니는 동안 육신의 형태로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다 가지는 행복한 도취감을 경험해야 합당하다. 이 도취감과 행복은 너희를 한결같고 쉬운 요기로 만든다. 이런 이유로 무체와 육신이라는 2중으로 정제된 방법이 필요하다. 앗챠.

오늘 바바는 그룹들을 만나야 하니, 육신과 무체의 도취감에 대한 얘기는 다른 때에 더 많이 들려주겠다. 밥다다는 2중의 외국인 자녀들의 봉사에서 나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실과 모든 지시에 순종하는 데 대해 그들을 특별히 축하해주고 있다. 너희들은 각자 크고 훌륭한 그룹을 데려왔다. 너희는 밥다다에게 전체에서 가장 좋은 꽃다발을 선사했다. 이렇게 한 데 대해 충실한 자녀인 너희들에게 밥다다는 "영원히 살며 계속 전진해라!"라는 축복을 준다. 앗챠.

기억과 봉사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바쁘게 참여하는 모든 곳의 사랑하고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도구인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찾은 자녀들에게, 너희의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을 보내고 너희의 기억에 대한 보답으로는 영원한 사랑을 보내니 부디 받아다오. 그렇게 영원하고 깊은 사랑을 지속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를 보내니 부디 받아다오.

Blessing: 행복이라는 행운을 받고 모든 행위에서 한결같이 영적인 도취감을 경험하고 남들에게도 경험을 주어라.

합류시대에 신이 너희를 친히 선택했기 때문에 자녀인 너희는 행복이라는 최고의 행운을 가진다. 너희는 무한함의 주인이 되었다. 너희들의 이름은 신의 "후즈 후 (인명 사전)" 사전에 실려 있다. 너희들은 무한한 아버지를 찾았고 너희는 왕국의 무한한 행운과 끝없는 보물을 받았다. 언제나 이 도취감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초감각적인 기쁨을 계속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한한 영적 도취감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남들에게 이 경험을 줘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이라는 행운을 가졌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Slogan: 편안함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봉사를 위해 편의시설들을 사용해라.

***** 옴 샨티 O M S H A N T I *****